

알래스카 石油 누출사고의 파장

지난 3월 24일 알래스카 발데즈항 25마일지점 해상에서 Exxon社 소속 유조선이 좌초되어 24만배럴의 원유가 누출되는 美 최대의 탱커누유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원유 제거 작업을 위해 ANS원유를 선적하는 유일한 항구인 발데즈항이 일시 폐쇄되어 美國內 석유공급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해상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알래스카 ANWR(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탐사·석유개발을 반대하던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구실을 주어 美國의 석유개발정책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고로 발데즈항이 폐쇄되자 200만b/d에 이르던 알래스카횡단 송유관의 송유량은 80만b/d로 감소되었고, 美 서부지역 정제공장은 사고의 복구를 기다리며 재고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ANS原油가 주로 공급되는 美 서부지역 정제공장 특성상 서부 캘리포니아産 原油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WTI油種과 혼합정제하든가 기타 中東·남미産油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도기간·규모 등으로 인해 이번 사고는 美國內 석유공급에 큰 위협을 주었다. 다행히 최근에 사고가 거의 복구되어 이 송유관의 수송능력은 원래 200만b/d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발데즈항에서의 선적도 차츰 복구되고 있어 일단 공급중단의 위협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로 ANS유조선수송이 위험하다면 캐나다 경유 송유관건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는데 이는 이번 사고의 충격을 여실히 반영해주는 것이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석유공급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석유시장의 영향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다. 사고발생후 복구까지의 기간동안 油價는 1~2\$/B 사이의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행태를 보였다.

알래스카 ANWR지역의 매장량은 72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美國 최대의 개발유망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생태계파괴의 위험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시행정부는 美國산유량의 격감, 석유수요증대로 인해 석유수입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지역 개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무튼 이번 사고가 석유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ANWR지역 개발문제 및 美國內 석유공급안보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간 석유뉴스>

